

原子力에너지 利用과 擴大 不可避

名 譽 大 會 長 金 聖 鎮

내외 귀빈 여러분, 신사 숙녀 여러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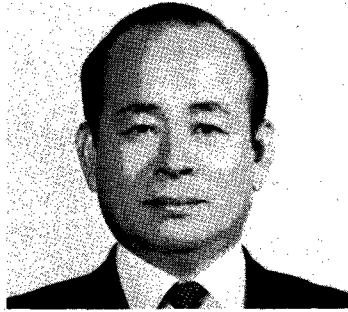
本人은 大韓民國 政府를 代表하여 오늘부터 서울에서 개최되는 第 5 次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에 대하여 축하 말씀을 드리게 됨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原子力事業을 振興시키기 위하여 學術情報를 交換하고 協力方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이자리에 모이신 여러분에게 眞心으로 感謝와 歡迎의 뜻을 드리는 바입니다.

太平洋沿岸地域은 北美洲, 南美洲, 大洋洲 그리고 亞細亞洲에 이르는 廣範한 地域을 包含하고 있으며, 世界 人口의 過半數가 이 地域에 雲集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海洋資源을 비롯한 各種資源이 豊富하여 앞으로 開發 潛在力이 큰 곳으로 오늘날 世界各國의 關心이 集中되고 있는 地域이기도 합니다.

이 地域의 開發 潛在力을 키우기만한다면 장차 世界經濟, 文化, 技術의 흐름을 主導해 나가게 될 것이며, 潛在力을 키우는 效果의 인 方法은 太平洋沿岸國들이 相互協力하여 나가는 길뿐이라는 사실을 本人은 믿고 있습니다.

에너지의 安定供給은 世界各國의 經濟發展과 人類福祉 向上에 필수적인 要素로서 石油에너지資源의 限界로 말미암아 오늘날 人類가 당면한 가장 큰 課題의 하나라고 하겠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原子力에너지의 利用과 擴大는 불가피하다고 하겠습니다.

太平洋沿岸地域은 他地域보다 石油資源이 貧弱하여 적극적인 原子力事業을 推進한 결과 오늘날 世界 總 原子力發電所의 3분의1 이상을 이 地域에서 보유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규모는 더욱 增大될 것으로 보여 집니다. 그러나 太平洋沿岸地域 各國의 原子力産業은 基礎育成段階에서 부터 成熟段階에 이르기까지 産業化의 各段階가 共存하고 있는 독특한 立場에 있으며, 이와 같은 점은 이 地域內의 共同繁榮과 利益을 위하여 技術과 經驗의 交流를 필요로 하



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 原子力發電은 政府가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事業의 하나입니다. 우리나라는 現在 3基의 原子力發電所가 가동되고 있으며 곧 1基가 追加로 가동될 豫定입니다.

한편 建設中인 原子力發電所는 5基에 이르며, 後續機의 發注도 計劃되고 있습니다. 현재 建設中인 原子力發電所가 1988년에 가서 商業稼動이 되면 全體 發電施設容量中 原子力이 차지하는 比率은 37% 정도가 되어 原子力이 國家에너지供給의 막중한 役割을 擔當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政府는 原子力發電所 安全性確保, 發電用 核燃料의 國産化 그리고 設計, 機資材 製作技術의 自立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國家間 또는 地域間 原子力 技術協力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가 原子力産業의 振興을 위하여 國家間 協力, 나아가 地域間 協力の 필요성을 強調해온 그동안의 努力과 成果를 높이 評價하고 앞으로 그 役割이 더욱 增大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本人은, 금번 서울會議에서는 會員國이 얻은 귀중한 經驗을 交換함과 더불어 原子力産業이 직면한 諸般問題가 충분히 論議되어 太平洋沿岸地域에서 原子力事業의 새로운 座標가 모색되기를 希望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第5次 太平洋沿岸國原子力會議가 열리게 됨을 다시 한번 眞心으로 축하하며, 짧은 기간이나마 이번 會議를 통하여 보다 결실있는 協力方案이 모색되기를 바라며, 또한 各國의 會員 여러분들의 서울會議 參席이 재미있고 유익한 여행이 되기를 衷心으로 기대합니다.

感謝합니다.